

2015학년도 제3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년 1월 7일(목요일) 11:00

2. 장 소 : 본관3층 제1회의실

3. 참석자 : (의장) 김원기

(의원) 김광희, 남상빈, 송수황, 유현주, 윤용택, 이재현

(간사) 홍창의 기획예산과장

4. 불참자 : 노정기, 김종환, 최승준, 박덕화

5. 안건 및 결의내용

- 1) 전차회의록 상정 - 원안 가결
- 2) 협성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심의 - 원안가결
- 3) 2015 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 예산안 자문 - 원안가결
- 4) 2016 회계연도 본예산안 자문 - 원안가결
- 5) 기타안건 - 요청안가결

6. 회의순서 및 내용

의 장 : 총원 11명 중 7명 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의 장 :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

의 장 :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

유현주 : 동의함

윤용택 : 재청함

의 장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의 장 : 첫 번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 장 : 두 번째 안건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사에게 부연설명을 요청

간서명	송수황	윤용택인	유현주
-----	-----	------	-----

간 사 : 현재 교육대학원 영재교육전공은 재학생이 없고 신입생 충원도 되지 않고 있음. 넓게 보면 대학원 전체 충원율이 50% 미만으로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의 장 :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구함

윤용택 : 대학원 전체 정원 변동은?

간 사 : 영재교육전공 폐과로 6명이 줄어 전체정원도 줄게 됨

유현주 : 대학원 학과 교수님들의 동의가 된 내용인가?

간 사 : 학과 교수님들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상정된 내용임

의 장 : 다른 의견을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두 번째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

김광희 : 동의함

유현주 : 재청함

의 장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의 장 : 두 번째 안전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 장 : 세 번째 안전을 상정하고 기획예산과장(간사 홍창의)에게 설명을 요청

기획예산과장(간사) : 먼저 기획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국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구함. 보고에 앞서 한가지 더 양해를 구함. 예산심의의 경우 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예산소위원회→법인이사회 순으로 심의가 진행됨. 그러나 진행 중 부결로 인해 재심의를 하게 될 경우 회계연도 안에 심의의결이 어려울 수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부결로 인해 재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인이사회에 결정을 위임해 주실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함

기획예산과장(간사) : 세 번째 안전에 대하여 요약보고. 주요사항과 총괄대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 설명, 연구학생경비의 경우 재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 등 내용을 설명함

의 장 : 세 번째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구함

윤용택 : 회계연도 기준은? 장학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장학금 지급 기준은?

기획예산과장(간사) : 회계연도는 3월부터 2월까지임.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전년도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재학생 1인당 교내지급액이 전년도 이상 편성의 조건이 있음. 재학생수의 경우 2015년에 20명을 정원감축, 정원의 산정 기준(학생모집) 변경으로 인해 모집인원이 줄게 되어 약 40명이 감소 인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학생수 감소로 1인당 장학금 편성액도 줄게 되었음. 재학생수는 매년 4.1기준 공시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음

간서명	송 수형		유현주
-----	------	---	-----

윤용택 : 장학금이 감소해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말인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지급은 전년보다 많이 지급했음. 편성한 대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장학금은 전년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깎을 수는 없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과다계상해서 지급하게 되면 상승곡선이 가파르게 되어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워짐. 학생들에게는 불만일수도 있겠지만 전년대비 수준으로 장학금을 편성하고 있음. 금번에 경우 장학금 확보, 등록금 인하 노력 등을 인정받아 6억 4천만원의 인센티브 수혜를 받았음

윤용택 : 재학생 대비 장학금 혜택 비율은?

기획예산과장(간사) : (학생복지과 답변을 받아) 정보공시 기준 재학생 4,618명중 3,553명이 수혜를 받아 약 77%가 혜택을 받았음. 1인당 약 167만원 정도의 혜택임

유현주 : 교육부, 지표 등에서 장학금 혜택 비율은 반영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음

남상빈 : 인센티브 6억 4천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인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충실한 이행노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추정됨

남상빈 :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다른대학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받은 수준인지?

기획예산과장(간사) : 학생복지과에서 장학금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에 의해 인센티브 수혜가 결정된 것이며, 많이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송수황 : 작년에는 인센티브 수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남상빈 : 현재 대학이 불안한 상황이고 향후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지 궁금했음

기획예산과장(간사) : 사실 우리대학의 경우 B등급을 받은 성결대학보다 정량지표는 높고 정성평가가 2점 낮음. 교육부의 정성평가방법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평가방법 때문에 우리대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남상빈 : 평가방법이 개선된다면 상위 등급 획득도 가능한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자신할 수 없음. 현재 확인내용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D등급 대학에 전국평균이상의 교육비환원율값을 요구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분리평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많은 재정 투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음

의 장 : 조정, 홍보 등에 비용이 너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걱정스러우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좋지 않은 여건에서 예산을 최소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음

간서명	송 수 황	윤용택인	유현주
-----	-------	------	-----

의 장 : 다른 의견을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세 번째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
운용택 : 동의함

이재현 : 재청함

의 장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의 장 : 세 번째 안전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 장 : 네 번째 안전을 상정하고 기획예산과장(간사 홍창의)에게 설명을 요청

기획예산과장(간사) : 201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 대학경쟁력 강화 측면에 비용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수입대비 지출이 24억 정도 모자르게 편성되었음. 모자른 부분은 1년동안 아껴쓰는 등 예산을 잘 운영하며 계속 고민해서 연말에 추경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현재 D등급 대학의 경우 지표보정을 위해 대출을 통한 지출을 늘려서라도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려 하고 있어 타대학 대비 우리대학 교육비환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8월이후 공시 지표값 발표결과에 따라 지표보정을 할 예정이며 등록금 수입의 경우 재학생수 감소, 교육부 지침변경(강화)에 의해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 부서의 불확실 사업(미결정 정부사업, 계정이 불분명한 특성화사업, 절전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의 장 : 네 번째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구함

송수황 : 3월중 불확실했던 사업이 결정될 경우 바로 투입이 가능한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가능함

운용택 : 절전사업과 관련 교내 LED등 교체는 하나도 없는지?

기획예산과장(간사) : 부분적으로 교체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LED등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해 시설관계과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임

김광희 : 산림청 부지매입비 62억은 올해 지급되는가?

이재현 : 부지매입이 결정 진행중에 있어 지급된다고 확인할 수 없음

기획예산과장(간사) : 부지매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김광희 : 산림청과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는가?

이재현 : 협의는 끝난 상태임

의 장 :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학생휴게공간 부족 검토, 도서관앞 분수대 미활용에 따른 활용방안 강구, 카페 비위생 개선을 통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현재 협성문화원장을 보직하고 있지만 협성문화원에 외부수입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간활용에 대한 대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재현 : 관련내용을 검토하겠으며 예산이 불충분한 상황임을 설명

간서명	송수황	운용택인	유영규
-----	-----	------	-----

남상빈 : 전기세, 수도세 등은 금액이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남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간사) : 그래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됨

남상빈 : 학생회에서도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전기 아껴쓰기 등의 활동을 계획중이며 아트갤러리의 경우 졸업작품전시등 학생들 활용이 많은 곳이므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 전시비용이 없었으면 좋겠음

의 장 : 아트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 전시비용은 시설 재투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해를 구함. 기타의견으로 예술대학원의 경우 학생이 입학 대기중인데 대학원 정원을 총정원제로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생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음

간 사 : 대학원의 경우 현재 재학생 충원율이 50%미만으로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를 5% 감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전에도 총정원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원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의 장 : 다른 의견을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네 번째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

김광희 : 동의함

윤용택 : 재청함

의 장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의 장 : 네 번째 안전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 장 : 기타로 기획예산과장이 요청한 ‘예산안 재심의 도중 부결될 경우 평의원회 의결을 법인이사회에 위임함’에 대해 안전을 상정함.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함

유현주 : 심의과정을 밟는 중에 법인이사회에서만 부결되는가?

기획예산과장(간사) : 그렇지는 않음. 그러나 법인이사회 부결 확률이 높고 평의원회 부터 다시 시작하면 기간안에 예산안 결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위임을 요청하게 되었음

송수황 : 향후 변동내역은 따로 알려주는가?

간 사 : 당연히 공지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

윤용택 : 동의함

송수황 : 재청함

의 장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의 장 : 기타 안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 장 : 다른 기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간서명	송수황	윤용택	유현주
-----	-----	-----	-----

(폐회 12:20)

7. 참석자 확인

의 장 :

김 원 기

의 원 :

김 광 희

남 상 빈

송 수 황

유 현 주

윤 용 택

이 재 현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간서명	송 수 황	윤 용 택	유 현 주
-----	-------	-------	-------